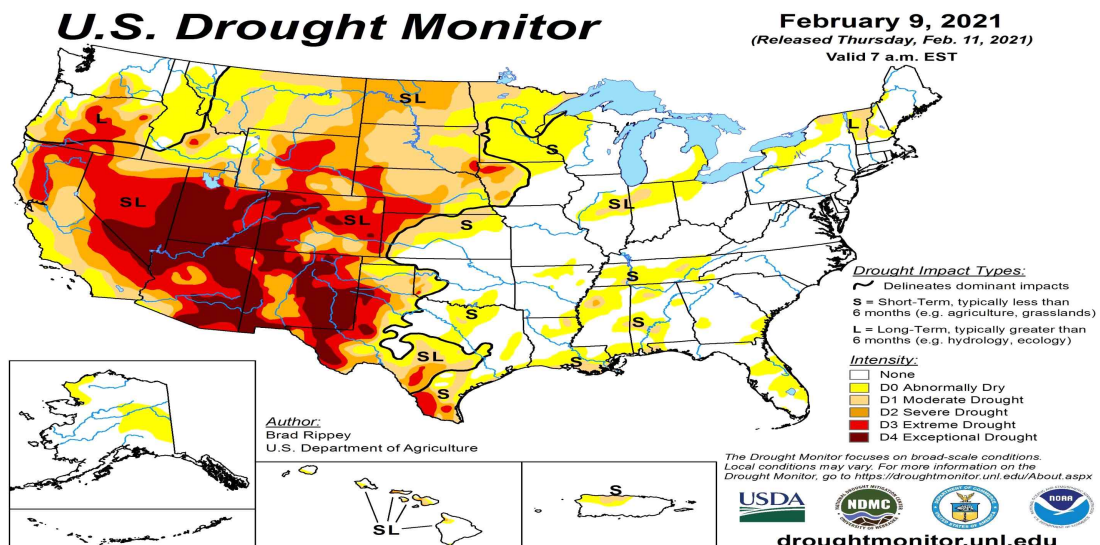


2월 17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8, No. 7)

□ 미국 기후 현황(2/7~2/13)

점점 더 세어지는 강추위가 - 남동부 하부 전역과 캘리포니아에서부터 로키산맥의 중부와 남부의 서쪽 경사면을 제외하고 - 전국을 휩쓸었다. 한파가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가벼운 비가 내렸다. 최고 총강수량들 (1~4 인치) 가운데 얼마가 남동부에 내렸는데 강수 차폐 (precipitation shield)의 북쪽 경계면을 따라 눈이 내렸다. 네브래스카 주와 주변에도 상당량의 눈이 덮였다. 주 후반에는, 점점 더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씨가 서부에 이르렀다. 북서부에서는 얇은 찬 공기층 위로 흐르는 수분으로 인해 상당량의 눈, 진눈깨비, 얼어붙는 비가 쌓이면서 많은 시골 지역 사회와 보이즈, 포틀랜드, 시애틀 같은 도시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소나기가 캘리포니아처럼 먼 남쪽까지 퍼졌고 남서부는 잠시 스쳐 지나갔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건조한 상태가 북부의 일련의 주들에 걸쳐서 퍼졌고, 2월 13일에 겨울 날씨가 미국 중남부 전역에 걸쳐서 시작되어 2월 14~15일에는 대량의 눈, 진눈깨비, 얼어붙는 비가 내렸다. 북부 및 중부 평원과 중서부 상부 전역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20~30° F 낮았는데 북부 고평원은 평균 수치가 평년보다 30~45° F 낮았다. 몬태나 주 북동부와 다코타 주 서부의 몇몇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에 있는 겨울 밀밭들에는 보호해주는 겨울 눈이 없어서 극심한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이 가중되었다. 중부 및 남부 평원들의 보호받지 못했던 밀밭에는 가장 추운 날씨가 오기 전인 2월 13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수준으로 눈이 내렸다. 2월 15~16일에는 최대치의 세력을 가진 북극 한파가 남부 깊숙이 도달하여 리오 그란데 계곡 하부에는 단단한 결빙이 일어났다. 한파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감귤류, 사탕수수, 겨울 채소 등 동파에 민감한 텍사스의 작물들에 대한 잠재적 피해가 조사 중에 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2월 6~7일 주말부터 시작해서 위협스럽게 추운 저온과 돌풍의 조합이 북부 평원과 중서부 상부에 영향을 미쳤다. 몬태나에서 미네소타 북부까지 극한의 풍속냉각 최저 기온이 -50° F 이하로 떨어지면서 극한 조건의 기간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가축의 스트레스가 가중되었다. 2월 13일 이후에 발생한 극단적인 결과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주에 게시될 것이다.



□ 농업 현황 요약 ()

: 내용없음

□ 세계 기후 현황(2/7~2/13)

■ 유럽: 북유럽에는 매서운 추위가 그리고 남부 지역은 온기가 지속되는 등 불안정한 날씨가 계속됐다. 중유럽과 북유럽을 가로질러 서쪽으로 계절에서 가장 추운 날씨가 치솟았고 대륙의 북반부에서는 한 주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10° C 낮았다. 독일에서 발트해 연안 국가들까지 최저 기온이 -18° C 또는 그 이하였지만 더 추운 겨울 농작물 지역들 대부분은 중간~두꺼운 설피빙원으로 덮여서 단열되었다. 프랑스와 영국의 눈이 없는 지역들에서 기온은 동사(凍死) 임계치 -17° C보다 크게 웃돌았다. 더 남쪽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동쪽으로 발칸 반도까지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2~5° C 높았다. 광범위한 강수가 계속되었는데, 독일에서부터 동쪽으로 북유럽에 눈으로 내린 총강수량은 다소 적었다 (2~20 mm 액체 등량). 한편, 대륙의 남쪽 절반에 걸쳐서는 중간~강한 비 및 산의 눈 (10~100 mm 액체 등량, 국지적으로 더 많이)이 보고되었다.

■ 구소련(서부): 내용없음

■ 동아시아: 내용없음

■ 호주: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 대부분에 걸쳐서 광범위한 소나기 (5~25 mm, 국지적으로 더 많이)가 내려서 면화와 수수의 발달을 촉진하여 작물 전망을 양호하거나 우수하게 유지하는데 일조했다. 그러나 호주 남동부에서는 건조한 날씨 포켓이 지속되면서 포도 습기가 국지적으로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층토 수분이 적당하고 관개 비축량이 충분했기 때문에 이 지역의 농작물 상태는 양호한 상태로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퀸즐랜드 남부에서는 평균 기온이 평년에 가까웠고 뉴 사우스 웨일즈에서는 평년보다 1~2° C 낮았다.

■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부의 여름 곡류와 유지작물 지역에 걸쳐서 건조한 상태가 발달하면서 북부 농경지 전역에 계속 비가 내렸다. 가장 심한 비 (50~100 mm)가 북서부와 그리고 국지적으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와 엔트레 리오스 동부 지역에 내렸다. 그 밖의 지역에는 더 건조한 상태가 우세하여 라 팜파와 부에노스아이레스 서부에서 산타페 중부까지 뻗어 있는 넓은 지역에는 10 mm 미만이 기록되었다. 북동부 (차코 동쪽에서 미시오네스까지)에는 비슷한 건조 포켓이 집중되었다. 더 건조한 상태로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많은 곳들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2° C 낮았고, 낮 최고 기온의 범위는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의 20도대 초반 (섭씨)에서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 북부와 그 주변의 높은 30도대 사이에 있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해바라기 수확은 조기 파종된 북부 농경지 주도로 23% (지난해 34%)가 끝났다. 또한 옥수수과 1차 작물 대두는 상당량이 종실비대-성숙기 중에 있고 이른 수확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게다가, 산티아고 델 에스테로의 면화는 성숙 중에 있었고 최근에 강우가 증가되기는 했지만 이전의 건조기 때문에 피해를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다.



■ 브라질: 브라질 북부의 대두와 면화 지역들 전역에는 계속해서 유익한 비가 내렸지만 남부의 농경 지역 날씨는 다시 건조해졌다. 마토 그로소 북부와 동부에서 동쪽으로 - 미나스 제라이스에서 북쪽으로 마란하오 전체로 뻗어 있는 농업 지구를 포함하여 - 내린 강우 총량은 25~100 mm였다. 조기 파종되어 성숙 중인 대두와 옥수수를 위해서는 너무 늦었지만 커피와 기타 작물들은 물론이고 출현 중인 2차 작물 옥수수와 면화를 위해서 그 수분은 시기 적절했다. 마토 그로소 정부에 따르면 2월 12일 현재 대두는 22% 수확되어 5년 평균 대비 23 포인트 뒤쳐졌다; 결과적으로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21% 및 82% 파종되어 둘 다 평균 속도보다 뒤쳐져 있었다. 반면, 마토 그로소와 상 파울로에서 북부 리오 그란테 도 숲까지 건조한 날씨 (총 강우량이 10 mm 이하)가 확대되었다; 상 파울로의 사탕수수나 다른 작물들에게 수분이 제한되기는 했지만 그 지역내 다른 곳들에서는 최근 몇 주 동안 유익한 비가 내린 이후여서 그 건조는 야외 작업을 때문에 환영을 받았다. 리오 그란테 도 숲 정부에 따르면 2월 11일 현재 대두의 80%가 생식-종실비대기 중에 있었고 조기 파종 옥수수 작물은 39% 수확되었다. 파라나에서는 2월 8일 현재 첫 번째로 파종된 대두와 옥수수의 각각 87% 및 93%가 종실비대-성숙기 중에 있었고 일부는 이미 수확되었다.